

# 자율차 등 AI 집중하는 현대차... 美·中 시장 공략 속도전

현대차그룹, 자율주행 기술 강화  
美 에이브라이드와 무인택시 협력  
조지아 생산 아이오닉5 연내 공급

중국 상하이에 AI 신규법인 설립  
426억 투입, 시정부와 협력 강화



정인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지난 1월 2024년 현대차그룹 신년회에 참석해 '한결같은 끊임없는 변화를 통한 지속 성장'이라는 새해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업의 혁신을 위해 다양한 스마트 제조 기술을 도입하고 있으며 최근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 미래 모빌리티 개발에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확보해가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미래 모빌리티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미국과 중국에서 자율주행 기술 강화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최근 현대차는 미국 자율주행 기술 기업 에이브라이드와 로보택시(무인택시) 사업에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현대차는 에이브라이드 기술을 적용한 전기차 아이오닉

5를 미국 조지아주 메타플랜트아메리카(HMGMA)에서 생산해 공급한다. 해당 차량은 올 연말 우버의 로보택시 서비스에 투입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협약으로 현대차가 자율주행차 파운드리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된 전기차를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동시에 로보택시

사업자와 자율주행 기술 기업에도 차량 공급을 늘려 로보택시 상용화를 주도하겠다는 전략이다. 현대차는 반도체처럼 기술 기업 요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차량을 제조하는 '자율주행차 파운드리(수탁생산)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해 10월 알파벳의 자율주행 기술 자회사인 웨이모와도 로보택시 관련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다.

현대차는 중국에서도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중국의 경우 신기술 테스트에 최적화된 만큼 미래 기술력 확보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현대차는 지난해 12월 중국 상하이에 AI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신규 법인을 설립했다. 이 신규법인 '코모차이나'는 초기 자본금은 2억1300만위안(한화 약 426억원)이다. 이곳에서는 AI와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등 미래차 관련 기술을 개발하며 소프트웨어중심차량(SDV)에 필요한 AI 기술 관련 상하이 시정부와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상하이시는 자율주행과 SDV를 통한 스마트 교통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상하이시는 총길이 2000km 이상의 도로를 자율주행차에 개방해 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가 이처럼 자율주행에 속도를 집중하는 것은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것이다. 시장조사기관마켓앤마켓에 따르면 글로벌 자율주행차 SW 시장 규모는 지난해 18억달러(약 2조6000억원)에서 2035년 70억달러(약 10조1000억원)

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의 전환에 집중하고 있다"며 "단순히 자동차 제조사를 넘어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를 아우를 수 있는 기업으로 전환해 시장 주도권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은 로봇 전문 계열사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생산해 올해 연말 현장 투입을 앞두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올 뉴 아틀라스'의 투입을 앞두고 테스트에 한창이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9일 올 뉴 아틀라스의 AI 학습 과정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연구진들이 아틀라스를 학습시키고 AI 기술을 활용하는 과정이 담겨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아틀라스가 부품 이동 등 단순 반복 작업에 투입되면 작업자의 부담을 덜 수 있고 효율성과 생산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연말 현대차 생산 거점에서 아틀라스의 시범 적용을 시작하면서 다양한 현장에서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애플 'AI 시리' 연기... 삼성 경쟁력 '파란불'

애플 기술력 의구심... 내년 출시 예상  
스마트홈 허브 출시 연기도 불가피

애플이 기존보다 더 개인화된 인공지능(AI) 비서 '시리' 출시를 연기함에 따라 애플의 기술력에 대한 의구심이 확대되면서 AI 선두주자인 삼성 등 주요 경쟁사들에 힘을 실리고 있는 모양새다.

최근 삼성전자는 자체 AI 비서인 '빅스비(Bixby)'와 구글의 생성형 AI 모델인 '제미니(Gemini)'를 통합해 온디바이스와 클라우드 기반 AI 기능을 스마트폰에 지원하고 있다. AI 스마트폰 시장의 강력한 경쟁사였던 애플이 한 걸음 물러나면서 삼성전자의 경쟁력에 '파란불'이 켜졌다.

10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최근 성명을 내고 "업그레이드된 시리 기능을 제공하는 데 생각보다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며 "내년에 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당초 이 기능은 다음달 iOS 18.4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이뤄질 때 공개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 연기로 스마트홈 허브 출시 연기도 불가피해졌다.

애플이 선보이려고 했던 시리는 사용자 맥락을 이해하고 더 자연스러운 대화를 지원한다. 애플리케이션(앱)을 보다 정밀하게 제어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용자들이 실사용할 때 시리가 음성 명령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원하는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AI 학습이 선행돼야 한다.

일각에서는 애플이 AI 훈련을 위한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해당 부서가 리더십 문제로 인력 이탈을 겪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애플은 공식적인 지연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개인정보보호 법적 문제도 선행돼야 할 과제다. AI 비서가 더 개인화된다는 건 그만큼 사용자 정보를 세밀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애플은 올해 1월 미국에서 제기된 개인정보 수집 관련 소송에서 미국 소비자들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제시해야 했다. 합의금은 9500만달러로 우리 돈으로 약 1400억원 규모다.

대상은 애플이 시리 기능을 도입한

2014년 9월부터 2022년까지 애플 기기를 사용한 소비자들이다. 원고들은 시리가 음성 호출없이 활성화돼 사적인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이 데이터를 광고주를 포함한 제3자에게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경쟁사인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리더십 확보에 '파란불'이 켜졌다. 그간 AI 스마트폰 선두주자인 삼성전자는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최근 AI 스마트폰을 출시한 애플의 빠른 추격으로 입지가 위협받는 상황이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의 '글로벌스마트폰 출하량 점유율'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비중은 2019년 20%에서 2024년 18.4%까지 하락했다. 반면 애플은 2019년 13%에서 시작해 2024년 18.3%로 성장, 삼성을 턱밑까지 추격했다. 시장은 애플이 자체 AI인 '애플 인텔리전스'를 통해 생성형 AI 스마트폰 시장에서 50%가 넘는 점유율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애플의 AI 출시가 연기되면서 삼성전자가 왕좌의 자리를 굳히는 데 힘을 얻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 삼성전자, 글로벌 사운드바 시장 판매 1위

금액 점유율 20.1%, 11년 연속 1위 수성

삼성전자가 글로벌 TV 시장에서 이어 사운드바 시장에서도 판매 1위를 기록했다. 10일 시장조사업체 퓨처소스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글로벌 사운드바 시장에서 금액 기준 20.1%, 수량 기준 18.4% 점유율을 기록해 2014년부터 11년 연속 1위를 수성했다.

지난해 출시한 최상위 모델 HW-Q990D를 비롯한 다양한 사운드바 제품이 현장감 넘치는 음향, 삼성 TV와 연동하는 Q심포니 기능, 편리한 연결성으로 사용자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글로벌 매체의 호평도 잇달았다. 미국 뉴스위크는 HW-Q990D를 '에디터스 초이스(Editor's Choice)'로 선정하고 "올해 구매 가능한 사운드바 중 최고의 서라운드 사운드를 자랑한다"고 평가했다.



/삼성전자

미국 IT매체 테크리처스(Techlicious)는 라이프스타일 사운드바 HW-S800D에 대해 "스타일과 디자인 두 가지를 중시하는 소비자에게 완벽한 선택"이라며 "에디터스 초이스(Editor's Choice)"로 선정했다.

삼성전자는 올해 인공지능(AI) 기반 음질과 서라운드 효과, 다양한 시나리오의 연결성을 강화한 신제품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구남영 기자

## 한화오션, 함정용 고내후성 차열도료 개발

해군 차세대 함정 성능 향상 기대

한화오션은 함정에 적용할 수 있는 업계 최고 성능의 도료 개발에 성공했다. 이번 성과는 우리 해군의 차세대 함정 운영에서 작전 능력과 생존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한화오션은 국내 도료사와 공동으로 함정용 고내후성 차열도료를 개발하고, 관련 성능 평가를 내부적으로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고내후성 차열도료는 함정 운용 시 자외선, 바람, 더위, 추위 등의 극한의 기후와 해양 조건에서 최고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게 돕는 도료를 의미한다. 주

요 방산 선진국들은 함정의 스텔스 성능 개선을 위해 선체의 적외선 신호를 줄이는 고내후성 차열도료를 표준으로 채택하고 있다.

한화오션의 차열도료는 온도 상승의 주요 요인인 근적외선을 80% 이상 반사할 수 있다.

이는 업계 평균 근적외선 반사율 대비 최대 60% 우수한 수치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내부 온도 증가도 최대 40% 저감시킨다. /양성운 기자

## LS에코에너지, 필리핀에 IDC 전력망 공급

'STT 페어뷰 캠퍼스'에 전력케이블  
동남아 IDC 시장 확대 교두보 마련

LS에코에너지가 동남아 데이터센터(IDC) 전력망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LS에코에너지는 베트남 생산법인 L S-VINA가 필리핀 최대 규모의 IDC 'STT 페어뷰 캠퍼스'에 MV(중전압) 및 LV(저전압) 전력 케이블을 공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급을 계기로 LS에코에너지는 동남아 IDC 시장 확대의 교두보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STT 페어뷰 캠퍼스는 글로벌 IDC 전문기업 STT GDC가 필리핀 마닐라 인근 케손시티에 건설 중인 데이터센터다. 완공 시 총

124메가와트(MW) 규모의 정보기술(IT) 용량을 갖춰 인공지능(AI) 및 클라우드 기업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STT GDC는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 산하 ST 텔레미디어가 100% 지분을 보유한 글로벌 IDC 운영 기업으로 싱가포르, 중국, 인도, 영국 등 전 세계 110개 이상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동남아시아는 AI-클라우드 산업의 급성장과 함께 대규모 IDC 건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LS에코에너지는 동남아 IDC 시장이 2023년 약 88억 달러에서 2028년까지 연평균 1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혜민 기자 hyem@